

## 경북지역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태도(II)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및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김 성 미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II)  
-the recognition, the seasonal customs and the life style-

Kim, Sungm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 Abstracts

This paper is intended to find out how much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recognize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what their attitudes toward the seasonal manners and customs are,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life styles. The average recognition of 27 kinds of Korean traditional foods is found to be 2.17 in general, 2.00 with male students and 2.34 with female students, which figures are thought to be low. The recognition of female student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94.4% of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ish traditional foods to be handed down. The reasons for handing them down are Korean unique culture, which is the highest (78.4%), good nutrition(7.2%) and good taste(14.5%). No student points to low price as a reason, which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think traditional foods more expensive than western foods.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p < 0.05$ ) between the evaluations and uses of traditional foods, so those with high evaluations of them use them more. The recognition of traditional foods i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attitudes toward the seasonal manners and customs, monthly family income( $p < 0.01$ )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s( $p < 0.05$ ). Based on life styles, the individuality-centered type shows the highest recognition of traditional foods(2.39), while the leisure-valuing type shows the lowest(2.03).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Key words : recognition, seasonal customs, traditional food, life style

### 1. 서 론

한 나라의 전통음식은 그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나라의 전통음식은 전통사회에서 사용된 음식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사회란 서구문화 도입 이전의 사회, 즉 개화기 이전의 사회를 나타내며, 개화기는 1870년대 이후의 19세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sup>1)</sup>, 이 시기 이전의 사회를 전통 사회로 보고, 이때까지 사용되어온 음식들을 전통음식으로 본다. 문화는 분열되고 통합되면서 변화해가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해간다. 음식문화를 재료 등의 유형적인 측면과 행동·사고방식·기호 등의 무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 무형적인 측면의 변화가 적을수록 새로운 요소는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다<sup>2)</sup>. 개화기 이후 많은 새로운 식품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음식들이 많지만 이들 중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볼 수 없는 음식들이 많다. 우리의 전통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문화 가운데 유형적인 측면이나 무형적인 측면 중 어느 한 가지는 개화기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커피는 고종 19년(1882)부터 구미제국과 수호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자 외국사신들에 의하여 궁중에 전해진 것으로 본다<sup>3)</sup>. 전래된 지 100년이 시간이 지나고, 또한 궁중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커피는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 이전 전통사회에서 사용된 음식과 개화기 이후 외국에서 전래된 식품들이 지금까지 사용된 식품재료와 함께 섞여 만들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전통적 방법으로 조리되어져 변형된 음식들을 전통음식이라고 보고자 한다. 정 등<sup>4)</sup>은 서울의 전통음식을 “서울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서울 사람들이 향유해온 고유의 음식”이라 정의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Sung Mee Kim, Keimyung University,  
1000, Shindang-dong Dalsu-gu, Daegu, 704-701, Korea  
Tel: 053-580-5871  
Fax: 053-471-5371  
E-mail: Smkim@kmu.ac.kr

전통음식은 그 전래된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의한 식품의 종류와 생활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 지역의 생태계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 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식생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서구화로 인한 변화는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였다고 본다. 특히 대학생은 각자의 개성 표현을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에 차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와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전통음식의 전승여부 등을 알아보고, 이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여 앞으로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자료가 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의 비는 각각 47.9%와 51.6%이었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예비조사는 1998년 11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농촌소재 대학과 도시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기재 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216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였다.

(1) 일반 및 사회 환경적 특성 조사 대학생의 일반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가족의 월 소득, 성장지역, 가족구성원의 형태, 거주형태, 어머니의 학력 등을 알아보았다.

#### (2) 전통음식의 인지도 조사

기존의 문헌<sup>5,6,7)</sup>등을 이용하여 선정된 전통음식 27종에 대하여 '들어 본 적도 없다' 1점,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다' 2점, '본 적은 있으나 먹어본 적은 없다' 3점, '먹어 본 적은 있으나 조리방법은 모른다.' 4점 및 '조리방법도 잘 안다.' 5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 (3)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조사

전통적으로 지켜져 내려오는 세시음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들어 본 적 없다' 1점, '들어 본 적은 있으나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3점 및 '세시음식을 장만하여 먹었다.' 5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4) 라이프 스타일 유형 분류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 유형은 조형오<sup>8)</sup>의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의 문항들을 대학생에 적합한 21개의 문항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각각 항목들은 5점척도의 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라이프 스타일 유형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인 분석을 추출하였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주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분류하였고, 군집 분석결과 나타난 각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 대한 해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로 사회·환경적 특성과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회 환경적 특성 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전통음식의 인지도 및 세시 풍습에 대한 태도 등의 남녀 대학생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이들 변인들의 종교상의 차이점은 ANOVA를 이용하였고, 추후 검정은 Duncan test로 검정하였다. 전통음식인지도,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가족의 월 소득 및 어머니학력 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을 유사성이 큰 집단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n=216)	Male(n=104)	Female(n=72)
Region raised	Urban	155(72.1)	73(70.9)	82(73.2)
	Rural	61(27.9)	31(29.1)	30(26.8)
Household income (10,000won/month)	Total	205.5 ± 103.4	199.8 ± 95.2	214.1 ± 114.9
Religion	Buddhist	47(21.8)	21(20.2)	26(23.2)
	Protestant	49(22.7)	24(23.1)	25(22.3)
	Catholic	21(9.7)	7(6.7)	14(12.5)
	Miscellaneous	83(38.4)	41(39.5)	42(37.5)
Family pattern	Nuclear	169(78.2)	78(75.0)	91(81.3)
	Extended	47(21.8)	26(25.0)	21(18.8)
House style	Detached house	139(64.4)	72(62.9)	67(59.8)
	Tenement house	12(5.6)	3(2.9)	9(8.0)
	Apartment	55(25.5)	26(25.0)	29(25.9)
	Miscellaneous	10(4.6)	3(2.9)	7(6.3)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 under	45(20.8)	27(26.0)	18(16.1)
	7-9	77(35.8)	41(39.4)	36(32.1)
	10-12	66(30.6)	24(23.1)	42(37.5)
	13 over	25(11.6)	11(10.6)	14(12.5)

**Table 2. The recogni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
pumpkin gruels	4.18 ± 0.65	4.15 ± 0.75	4.20 ± 0.55	0.620
rice mixed grain	3.98 ± 0.68	3.96 ± 0.75	3.99 ± 0.61	0.750
beverage(dried persimon)	3.97 ± 0.77	3.86 ± 0.98	4.08 ± 0.47	0.035
spiced & dried beef	3.50 ± 0.94	3.67 ± 0.95	3.34 ± 0.91	0.009
kimchi	3.39 ± 0.99	3.37 ± 1.06	3.40 ± 0.91	0.808
hwajeon	2.87 ± 1.20	2.59 ± 1.30	3.13 ± 1.04	0.001
kyungdan	2.56 ± 1.26	2.32 ± 1.30	2.77 ± 1.19	0.010
tangpyungchad	2.40 ± 1.20	1.73 ± 0.99	3.02 ± 1.03	0.000
da-sik	2.21 ± 1.29	2.08 ± 1.29	2.34 ± 1.28	0.135
sinsul-ro	2.20 ± 1.10	1.94 ± 1.22	2.43 ± 0.91	0.001
shrimp jim	1.95 ± 1.03	1.74 ± 1.00	2.15 ± 1.02	0.003
jujube-po	1.81 ± 1.10	1.82 ± 1.16	1.81 ± 1.05	0.975
nube-ancee	1.80 ± 1.19	1.35 ± 0.95	2.22 ± 1.26	0.000
pumpkin-sun	1.80 ± 1.14	1.53 ± 0.91	2.05 ± 1.27	0.001
goojulpan	1.79 ± 1.15	1.57 ± 1.01	2.00 ± 1.23	0.005
dropwart-kanghoe	1.75 ± 1.11	1.57 ± 1.04	1.93 ± 1.14	0.016
pyun-soo	1.72 ± 0.98	1.48 ± 0.85	1.94 ± 1.04	0.001
hwayang-juk	1.71 ± 1.07	1.36 ± 0.87	2.04 ± 1.23	0.000
supsan-juk	1.70 ± 1.15	1.44 ± 1.04	1.94 ± 1.20	0.001
mustard-chaee	1.70 ± 1.00	1.49 ± 0.88	1.90 ± 1.07	0.002
mussel-cho	1.68 ± 0.98	1.56 ± 0.89	1.79 ± 1.05	0.097
pear-sook	1.46 ± 0.96	1.38 ± 0.95	1.53 ± 0.97	0.277
mugwort-soup	1.44 ± 1.65	1.21 ± 0.66	1.65 ± 2.19	0.044
maejacgua	1.35 ± 0.99	1.23 ± 0.63	1.46 ± 1.24	0.091
jangsan-juk	1.32 ± 0.78	1.21 ± 0.71	1.41 ± 0.83	0.063
joo ak	1.21 ± 0.57	1.22 ± 0.64	1.20 ± 0.50	0.750
dootup-tuk	1.19 ± 0.56	1.23 ± 0.67	1.15 ± 0.43	0.308
Total	2.17 ± 0.56	2.00 ± 0.54	2.34 ± 0.51	0.000

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대학생이 72.1%, 농촌 지역의 대학생이 27.9%이었다. 가족의 월 소득은 남학생은 199만원, 여학생은 214만원으로, 여학생의 가족 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78.2%, 확대가족이 21.8%였으며, 거주형태는 단독주택 64.4%, 아파트 25.5%, 기타 10%를 나타내었다. 본인의 종교는 불교 21.8%, 개신교 22.7%, 카톨릭 9.7%, 기타 38.4%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교육기간 6년 20.8%, 9년 35.6%, 12년 30.6%, 16년 11.6%이었고 남학생의 어머니학력은 평균 9.7년,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은 10.6년으로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이 높았다.

## 2.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27종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표2에 나타내었다. 남녀 전체의 인지도는 5점 척도에서 2.17, 남학생의 인지도는 2.00, 여학생의 인지도는 2.3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 < 0.001$ ). 특히 먹어본 적이 없는 3점이하의 점수를 가지는 음식이 남학생의 경우 27종 중 23종, 여학생의 경우 20종이나 되었다. 이 등<sup>9)</sup>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 중 조금 알고 있다가 68.9%, 잘 알고 있다가 20.9%로 나타나 주부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김 등<sup>10)</sup>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 절식 음식 등에 대한 지식이나 조리방법은 부모로부터 배웠다가 지배적이었던 보고 등에서 앞으로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기회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통음식 27종 중 인지도가 낮은 음식은 두툽떡, 주악, 장산적, 매작과 및 애달국 등이었고 인지도가 높은 음식은 수정과, 오곡밥 및 호박죽 등이었다. 인지도가 낮은 두툽떡이나 매작과 등은 앞으로 대단위 상품화가 가능한 음식들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음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에는 전통음식인지도와 사회·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인의 종교에서 남녀대학생 전체로 보았을 때, 종교가 불교인 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개신교의 학생이 가장 낮아 개신교와 불교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종교가 불교인 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개신교인 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cogni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Region raised	Urban	2.20 ± 0.56	1.99 ± 0.53	2.39 ± 0.51
	Rural	2.10 ± 0.53	2.00 ± 0.56	2.20 ± 0.48
	p-value	0.231	0.915	0.087
Family pattern	Nuclear	2.07 ± 0.50	1.97 ± 0.44	2.34 ± 0.50
	Extended	2.18 ± 0.69	2.07 ± 0.78	2.31 ± 0.56
	p-value	0.939	0.428	0.768
Parent's religion	Buddhist	2.26 ± 0.62	2.07 ± 0.68	2.41 ± 0.54
	Protestant	2.04 ± 0.37	1.92 ± 0.41	2.15 ± 0.31
	Catholic	2.21 ± 0.56	1.95 ± 0.27	2.44 ± 0.66
	Miscellaneous	2.12 ± 0.44	1.95 ± 0.38	2.31 ± 0.44
	F-value	1.773	0.431	1.282
Student's religion	Buddhist	2.32 ± 0.67 <sup>b</sup>	2.12 ± 0.72	2.48 ± 0.60 <sup>b</sup>
	Protestant	2.03 ± 0.35 <sup>a</sup>	1.91 ± 0.37	2.15 ± 0.31 <sup>a</sup>
	Catholic	2.30 ± 0.70 <sup>b</sup>	2.17 ± 0.78	2.36 ± 0.67 <sup>ab</sup>
	Miscellaneous	2.19 ± 0.51 <sup>ab</sup>	2.01 ± 0.52	2.35 ± 0.44 <sup>ab</sup>
	F-value	2.474 *	0.662	1.841 *
Household income(10,000 won/month)	199under	2.02 ± 0.41	1.89 ± 0.40	2.19 ± 0.36
	200over	2.22 ± 0.61	2.12 ± 0.63	2.37 ± 0.36
	p-value	0.025 *	0.049 *	0.157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 under	2.01 ± 0.42 <sup>a</sup>	1.87 ± 0.36	2.24 ± 0.41
	7-9	2.12 ± 0.53 <sup>ab</sup>	1.97 ± 0.52	2.29 ± 0.51
	10-12	2.34 ± 0.63 <sup>b</sup>	2.18 ± 0.75	2.43 ± 0.55
	13 over	2.22 ± 0.44 <sup>ab</sup>	2.03 ± 0.35	2.38 ± 0.46
	F-value	3.748*	1.537	0.857

\*  $p < 0.05$  \*\*  $p < 0.01$

Table 4. The attitudes on the seasonal custom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
sul-nal(new year day)	4.95 ± 0.30	4.94 ± 0.34	4.96 ± 0.27	0.594
bo-rum	4.56 ± 0.83	4.42 ± 0.91	4.70 ± 0.72	0.016
sam-git nal	3.07 ± 0.99	3.06 ± 1.13	3.08 ± 0.85	0.869
dan-ou	3.55 ± 0.97	3.54 ± 0.93	3.56 ± 1.02	0.880
you-doo ill	2.49 ± 0.99	2.58 ± 0.99	2.40 ± 0.10	0.195
choo-suk	4.88 ± 0.51	4.83 ± 0.57	4.93 ± 0.46	0.150
joong-yang jeol	2.21 ± 1.03	2.55 ± 0.92	1.90 ± 1.03	0.000
dong-jee	4.51 ± 0.92	4.45 ± 0.91	4.56 ± 0.93	0.379
Total	3.78 ± 0.44	3.80 ± 0.48	3.77 ± 0.39	0.720

였다(p < 0.05). 전래 당시 우리 나라 토속의 무속을 습합한 불교<sup>11)</sup>는 개신교 보다 전통음식에 대하여 보다 친밀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월 소득에 있어서는 남녀 전체와 남학생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여학생의 경우에도 가족의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이 2.37, 낮은 집단이 2.19로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인지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교육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가 그 보다 높은 학력에 비해 유의적으로 전통음식에 대하여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p < 0.05). 또한 성장지역에 따라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학력이 동일한 경우, 성장지역은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세시풍속에 대한 태도

세시풍속 중 상당 부분이 음식을 장만해서 먹고 즐긴 행사였으며 여러 가지 세시풍속 행사 중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음식과 관련된 행사이다. 세시음식은 제철에 나는 식품재료를 거의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영양소 보충의 의미가 있다<sup>4)</sup>.

설날, 정월 대보름, 삼짱날, 단오, 유두일, 추석, 중앙절 및 동지 등 8가지 세시 풍속 중 ‘들어본 적 없다’ 1점, ‘들어 본 적은 있으나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3점, ‘세시음식을 장만하여 먹었다’ 5점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 세시일로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동지, 단오, 삼짱날, 유두일 및 중앙절의 순서를 나타내어, 설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중앙절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유두일과 중앙절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켜

지지 않는 세시풍습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의 성인을 중심으로 한 김 등<sup>12)</sup>의 연구에서 유두일과 중앙절은 명절 행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가 92%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중앙절만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정월대보름은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국<sup>13,14,15,16)</sup>과 재미한인<sup>17)</sup> 및 중국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sup>18)</sup>에 있어 명절로 인식되고 있는 세시 일의 순서는 설, 추석, 대보름 및 동지로 나타났다. 이 등<sup>6)</sup>의 연구에서 절기음식에 대한 지식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설날, 동지, 추석, 정월대보름의 순서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동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세시 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세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박<sup>19)</sup>의 연구에서 명절로의 시행율이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단오 및 동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오는 한국보다 중국조선족들이 더 많이 지키고 있는 명절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류 등의 연구<sup>18)</sup>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와 사회·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성장지역에 따라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 대학생 전체를 보았을 때, 도시보다 농촌이 매우 유의적으로 높아 농촌에서 성장한 학생이 세시풍습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남학생만의 경우, 역시 도시 3.72, 농촌 3.98로, 농촌에서 성장한 남학생이 도시에서 성장한 학생보다 유의적으로(p < 0.05)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도 도시 3.73, 농촌 3.91로 유의적으로 농촌성장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attitudes on the seasonal custom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Region raised	Rural	3.72 ± 0.41	3.72 ± 0.46	3.73 ± 0.37
	Urban	3.94 ± 0.47	3.98 ± 0.52	3.91 ± 0.43
	p-value	0.001***	0.016**	0.035*
Family pattern	Nuclear	3.79 ± 0.42	3.79 ± 0.46	3.78 ± 0.39
	Extended	3.78 ± 0.49	3.81 ± 0.55	3.73 ± 0.41
	p-value	0.882	0.885	0.538
Parent's religion	Buddhist	3.83 ± 0.42 <sup>b</sup>	3.82 ± 0.52 <sup>b</sup>	3.83 ± 0.33 <sup>b</sup>
	Protestant	3.57 ± 0.46 <sup>a</sup>	3.63 ± 0.41 <sup>ab</sup>	3.53 ± 0.50 <sup>a</sup>
	Catholic	3.68 ± 0.43 <sup>ab</sup>	3.39 ± 0.24 <sup>a</sup>	3.90 ± 0.41 <sup>b</sup>
	Miscellaneous	3.85 ± 0.42 <sup>b</sup>	3.90 ± 0.44 <sup>b</sup>	3.80 ± 0.38 <sup>b</sup>
	F-value	3.875**	2.823	3.392*
Student's religion	Buddhist	3.83 ± 0.47	3.83 ± 0.61	3.84 ± 0.32 <sup>b</sup>
	Protestant	3.63 ± 0.43	3.69 ± 0.42	3.57 ± 0.45 <sup>a</sup>
	Catholic	3.71 ± 0.49	3.68 ± 0.53	3.72 ± 0.48 <sup>ab</sup>
	Miscellaneous	3.83 ± 0.39	3.80 ± 0.45	3.86 ± 0.33 <sup>b</sup>
	F-value	2.883	0.494	3.486*
Household income (10,000won/month)	199under	3.75 ± 0.43	3.76 ± 0.48	3.74 ± 0.36
	200over	3.86 ± 0.45	3.85 ± 0.49	3.88 ± 0.39
	p-value	0.129	0.370	0.159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under	3.88 ± 0.39 <sup>b</sup>	3.88 ± 0.41 <sup>ab</sup>	3.88 ± 0.38 <sup>b</sup>
	7-9	3.68 ± 0.44 <sup>a</sup>	3.62 ± 0.50 <sup>a</sup>	3.75 ± 0.35 <sup>ab</sup>
	10-12	3.85 ± 0.41 <sup>ab</sup>	3.88 ± 0.47 <sup>ab</sup>	3.84 ± 0.37 <sup>ab</sup>
	13 over	3.84 ± 0.50 <sup>ab</sup>	4.14 ± 0.36 <sup>b</sup>	3.61 ± 0.48 <sup>a</sup>
	F-value	2.872*	4.563**	1.753*

\* p&lt;0.05 \*\* p&lt;0.01 \*\*\* p&lt;0.001

세시 풍습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어머니학력은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와는 달리, 초등학력의 어머니를 둔 학생이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높아, 중등학력의 어머니를 둔 경우와 유의적인 차이(p < 0.05)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중등학력의 어머니를 둔 경우 가장 낮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대학학력의 어머니를 둔 경우가 가장 낮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강 등<sup>20)</sup>의 연구에서는 어머니학력과 가족 월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별로는 명절 때 전통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초·중졸 주부가 가장 높았고, 대졸이상 주부들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바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 6. 전통음식 전승에 대한 태도

전통음식을 전승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표 6에 제시하였다. 94.4%가 전승할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사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도시보다 농촌의 학생들이 전승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sup>21)</sup>의 연구에서 나타난 97.6%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강 등<sup>22)</sup>의 농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비교에서 95.5%의 학생이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 농촌 대학생의 경우 95.0%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Table 6. The attitudes on the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wished the inheritance		unwished the inheritance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Male	98	94.0	3	2.9
Female	106	94.6	5	4.5
Urban	146	94.2	7	4.5
Rural	57	95.0	1	1.7

Table 7. The reasons for the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Gender			Region raised	
	Male	Female	Total	Urban	Rural
Korean unique culture	77(76.2)	86(80.4)	82(78.3)	118(78.7)	45(78.9)
good nutrition	7( 6.9)	8( 7.5)	8( 7.2)	10( 6.7)	5( 8.8)
good taste	17(16.8)	13(12.1)	15(14.5)	22(14.6)	7(12.3)
low price	0	0	0	0	0

Table 8. The attitudes and the inheritance(wish or unwish)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wish the inheritance	unwish the inheritance	p-value
evaluation	5.25 ± 0.82	4.45 ± 1.43	0.010
utilization	2.90 ± 0.40	2.57 ± 0.80	0.316
recognition(traditional food)	2.18 ± 0.54	2.13 ± 0.80	0.796
attitudes(seasonal customs)	3.80 ± 0.43	3.30 ± 0.64	0.005

표 7에 전통음식이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이 78.4%로 가장 높았고, '영양이 좋기 때문에' 7.2% '맛이 좋기 때문에' 14.5%를 나타내었다. 이 등<sup>5)</sup>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영양이 풍부하므로'는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식의 값이 싸기 때문에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아 대학생의 경우, 한국음식이 다른 서구식 편의음식들 보다 비싸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장 등<sup>20)</sup>의 한 연구에서는 전통음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 '맛이 다양하다'를 44.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김<sup>23)</sup>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이유로 '식성에 맞으므로'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식생활문화 계승'이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맛이 좋기 때문에'는 14.5%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식품에 대한 기호의 기준이 세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맛 좋은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승하기보다는, 한국전통음식은 영양 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보다 차원 높은 요리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맛이 좋다고 느끼는 집단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장지역이 농촌인 경우보다는 도시인 경우였다. 이 사실은 전국이 점차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가정의 식생활은 남편의 기호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에서 희망적인 결과로 보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등<sup>5)</sup>의 연구에서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4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교육으로 27.9%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 등을 홍보하는데 있어 조직적으로 계획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8에 전통음식을 전승해야한다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sup>24)</sup>의 연구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전통음식이용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인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하였다. 이용도, 인지도 및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등은 전승을 원하는 경우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통음식평가는 전승을 원하는 경우 5.25, 원하지 않는 경우 4.4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전통음식을 높이 평가 할 때 전통음식 전승을 원하고 있었다.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9에 나타내었다. 전통음식평가는 전통음식이용도에 대한 태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p < 0.05)를 보여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전통음식이용도가 높았다. 전통음식이용도 또한 전통음식인지도(p < 0.01),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p < 0.01), 가족의 월소득(p < 0.01) 및 어머니 학력(p < 0.05)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총수입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희망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어머니의 학력은 향상될 것이 확실하므로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도와 인지도는 높아 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월 소득은 어머니 학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p < 0.05), 가족의 월

Table 9.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evaluation	utilization	recognition (traditional foods)	attitudes (seasonal customs)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valuation	1.000					
utilization	0.282**	1.000				
recognition(traditional foods)	0.096	0.365**	1.000			
attitudes(seasonal customs)	0.117	0.212**	0.275**	1.000		
household income	0.074	0.243**	0.186*	0.126	1.00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011	0.148*	0.190**	0.026	0.195*	1.000

\* p&lt;0.05 \*\* p&lt;0.01

Table 10. General characteristics by the life style

variables		Personalitic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Significance
Gender	Male	31(29.8)	41(39.4)	16(15.4)	16(15.4)	$\chi^2 =$ 22.5 ***
	Female	17(15.2)	28(25.0)	19(17.0)	48(42.9)	
	Total	48(22.2)	69(31.9)	35(16.2)	64(29.6)	
Household income		192.3 ± 103.4	201.0 ± 105.4	202.4 ± 79.6	229.4 ± 116.9	F=0.816
Religion	Buddhist	9(19.1)	14(29.8)	11(23.4)	13(27.7)	$\chi^2 =$ 10.813
	Protestant	13(26.5)	14(28.6)	6(12.2)	16(32.7)	
	Catholic	9(42.9)	5(23.8)	4(19.0)	3(14.3)	
	Miscellaneous	15(18.2)	31(38.6)	12(14.5)	23(28.9)	
Region raised	Urban	31(20.0)	45(29.0)	25(16.1)	54(34.8)	$\chi^2 =$ 7.307
	Rural	16(26.7)	24(40.0)	10(16.7)	10(16.7)	
Educational level of mother		9.77 <sup>ab</sup> ±2.82	9.44 <sup>a</sup> ±2.83	10.74 <sup>b</sup> ±3.42	10.73 <sup>b</sup> ±3.06	F=2.742*

\* p&lt;0.05 \*\*\* p&lt;0.001

소득이 높은 학생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과거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인구 통계적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의 소비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적 요소들이 중요하였지만,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원화, 개별화 되어가면서, 인구 통계적 요소들이 안고 있는 단조로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동기적 특성이라든지, 가치체계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여 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조<sup>8)</sup>는 보고하고 있다. 표 10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사회·환경적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여가중시형'이 39.4%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타인추구형'이 42.9%로 가장 많았다. 남녀 전체로는 '여가중시형'이 31.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 < 0.001). 성장지역별로는 도시에서는 '타인추구형' 34.8%, 농촌에서는 '여가중시형' 40.0%로 가장 많았

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초등학교까지 성장한 지역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여성에게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도시에서 성장한 여성은 타인추구형이 51.2%, 농촌에서 성장한 여성은 '개성중시형'이 3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 '여가중시형'이 가장 높아 도시 성장 남성 34.3%, 농촌 성장 남성 53.0%를 나타내었다.

표 11에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전통음식인지도와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다. 전통음식인지도가 가장 높은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개성중시형'으로 2.39를 나타내었고, '여가중시형'은 2.0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역시 '개성중시형'이 3.85로 가장 높았고, '여가중시형'은 3.78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sup>25)</sup> 등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외식에 관한 변인들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Table 11. The recogni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and the seasonal customs by the life cycle

variables	Personalitic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F-value
recognition (traditional foods)	2.39 ± 0.69 <sup>b</sup>	2.03 ± 0.49 <sup>a</sup>	2.14 ± 0.54 <sup>a</sup>	2.19 ± 0.45 <sup>ab</sup>	3.961*
attitudes (seasonal customs)	3.85 ± 0.51	3.73 ± 0.48	3.77 ± 0.44	3.79 ± 0.33	0.560

\* p<0.05

비합리형, 실용적 안전형 및 진보적 활동형으로 라이프 스타일 분류에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고, 외식의 횟수와 비용이 가장 많은 유형은 진보적 활동형으로 보고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전통음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보고가 없어 시대별로 이를 고찰 할 수 없음이 아쉽다고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와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분석하였다. 27종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통음식 27종 중 인지도가 낮은 음식은 두툰떡, 주악, 장산적, 매작과 및 애탕국 등이었고 인지도가 높은 음식은 수정과, 오크밥 및 호박죽 등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94.4%가 전통음식을 전승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가 78.4%로 가장 높았고, '영양이 좋기 때문에' 7.2%, '맛이 좋기 때문에' 14.5%를 나타내었다. '음식의 값이 싸기 때문에'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아 대학생의 경우, 한국음식이 다른 서구식 편의 음식들 보다 비싸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전통음식의 전승여부에 있어서는 전승을 원하는 경우 5.25, 원하지 않는 경우 4.45를 나타내었다.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농촌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농촌에서 자란 여학생이 세시풍습을 잘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전통음식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전통음식이용도가 높았다. 전통음식이용도 또한 전통음식인지도, 세시풍습에 대한 태도, 가족의 월 소득 및 어머니 학력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전통음식에 대한 이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인지도가 가장 높은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개성중시형'으로

2.39를 나타내었고, '여가중시형'은 2.0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앞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시풍습은 잊혀지는 것과 지켜지는 것으로 이분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의 것에 대한 강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이민식 : 최근사에 비친 한국의 실체, 국학자료원 (1996)
2. 이성우 : 식생활과 문화, 수학사(1998)
3. 강인희 : 한국식생활사, 삼영사(1995)
4. 정혜경, 이정혜 : 서울의 음식문화, 서울학 연구소(1996)
5. 이효지, 오미야 :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지식·기호도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3(4):65-87(1995)
6.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 및 섭취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 187(1993)
7.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1991)
8. 조형오 :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2) : 223(1996)
9.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 전통음식의 현황에 대한 연구, 韓國食文化學會誌, 6(1):71(1991)
10. 金惠子, 春田和子 : 食生活文化 繼承의 現狀에 關한 韓·日 兩國의 教育的인 課題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8(4) : 337(1993)
11. 김태곤 :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회지, 19:169(1986).
12. 金香希, 黃春仙 : 韓國節食의 施行實態에 關한 地域別 比較研究-강릉, 대구, 대전, 전주지 역을 중심으로-韓國食文化學會誌, 6(2) : 155(1991)
13. 허성미, 한재숙 :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3(2) : 83(1993).
14. 임양순 :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韓國食文化學會誌, 1(4) : 361(1986).
15. 설민영·김을상·한양일 : 청주지역 세시음식에 관한 연구. 韓國食文化學會誌, 6(3) : 257(1991).
16. 윤은숙 : 우리나라 명절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1(2) : 140(1995).
17. 심영자, 김정선 : 재미 한인 주부들의 한국 명절음식에 대한 인식. 한국조리과학회지, 14(2) : 148(1998).
18. 류은순, 류경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식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1(3) : 327(1996).

19. 박영선 :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식품금기에 대한 인식.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2(3):103(1997).
20. 장은주, 이윤경, 이효지 :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식생활행동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1(2) : 179(1996).
21. 구난숙 :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0(4) : 357(1995).
22. 강업순, 천종희 : 도시·농촌 중학생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비교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2) : 97(1998).
23. 김경희 : 한국음식의 즉석 식품화에 대한 관심도 조사-서울지역 대학생 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1993).
24. 김성미 : 경북지역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태도 (I)-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이용도 및 라이프 스타일과의 관계-. 한국조리과학회지, 16(1) : 27(2000)
25.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 33(1990)

---

(2001년 2월 26일 접수)